우리는 새싹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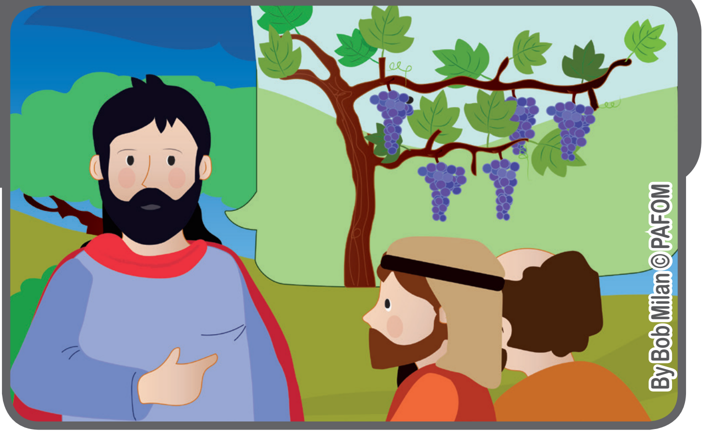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요한.15장3절)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신 후,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유다는 이미 먼저 나가고 없었어요.

예수님께 매우 힘든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즉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나는 그 사람 안에 남고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말라서 버려질 것이다.(요한 15장 1–7절)

저녁에 엄마가 많이 피곤해 하시며 저에게 저녁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별로 도와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 아침에 던졌던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라는 사랑의 주사위가 생각났어요.

엄마를 도와 생선요리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PAFOM, 어린이 생활말씀의 내용과 그림은 4젠본부에서 제공합니다. 4젠은 끼아라 루빅에 의해 설립된 포콜라레 운동이 어린이들입니다.